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상층부 수색 돌입

대책본부, 20층 전진지휘소 설치...“모든 역량 집중” 지하층 등 작업 마무리 단계... 크레인 2호기 투입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조당국이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상층부 수색 작업에 돌입한다. 이에 구조당국은 무너진 건물 상층부에 전진지휘소를 설치, 안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상층부를 수색 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이날 상층부 수색을 대비해 붕괴사고 현장인 20층 쪽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했다.

상층부 수색과 구조는 건축구조·시공·철거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대로 안전화 작업 이후 진행할 계획이며, 수색과 구조 방법도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구조대 활동이 가능한 지상층 수색은 마무리 단계로 실종자를 찾기 위해선 붕괴한 상층부 수색이 필수적이지만, 구조대원의 안전지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 자문에 따라 상층부 수색은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본부가 전날 진행한 자문단 회의에서도 내부 수색을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안전지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붕괴 범위에 대한 평면도를 별도로 작성하고, 층별로 안전 보강 방법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당국은 붕괴 나흘째인 14일 지하 1층에서 잔해에 매몰된 실종자 1명을 사망 상태로 수습했고, 아직 별다른 수색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구조대원들이 일부 평평한 고층부 지점 진입과 내시경 카메라를 이용한 수색을 시도했지만, 잔해와 낭떠러지 등으로 근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워크레인이 기울어진 상태로 건물 상층부에 기대어 있어 이를 먼저 해제해야 상층부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상에도 잔재물이 많아 중장비 진입이 어려웠는데 전날 주차장 부근의 잔재물 처리를 완료해 이날부터는 집게차와 굴삭기 등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 잔해가 쏟아진 건물 밖을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수색도 타워크레인 하부 지상과 지하 등 하층부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붕괴가 진행된 23~38층 절개면에 위태롭게 매달린 잔해가 후속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을 지상 19층에 설치하는 작업도 수색과 별도로 진행됐다.

해당 작업은 지상 잔해 제거 마무리 후 오는 19일께 착수할 예정이다.

붕괴 당시 기울어진 높이 약 145m 타워크레인을 해제할 1,200m 규모 이동식 크레인 2호기가 19일 현장에 배치돼 20일 1호기와 함께 해제 작업에 투입된다.

전날부터 현장에 투입된 해제 크레인 1호기는 쇠줄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을 이틀째 이

어가고 있다. 세부적인 해제와 와이어 보강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층부 수색 착수에 대비해 20층 쪽에 전진 지휘소를 설치할 것”이라며 “모든 구조 역량을 그곳에 배치하겠다. 지하층과 지상 저층부 수색은 곧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6분께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무너지는 사고가 나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수습됐고, 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남은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현장 안전 보강, 잔해 제거와 함께 진행 중이다.

/최환준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1~20	순천	10~22	광양	11~20
나주	8~20	목포	11~19	여수	14~20

일출 07:39 일몰 17:47
월출 18:53 월몰 08:41

장성	-7~6	흑산도	1~7
담양	-7~7	구례	-7~7
화순	-8~6	곡성	-9~7
영광	-8~5	완도	-3~7
함평	-6~6	강진	-6~7
무안	-6~6	장흥	-7~7
영암	-7~6	해남	-7~5
진도	-4~6	고흥	-6~7
신안	-5~5	보성	-8~7

목포	만조 02:39 15:30	여수	만조 10:18 22:16
	간조 08:07 20:49		간조 03:45 16:1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1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8일째인 18일 오전 관계자들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그대로 드러난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콘크리트 양생 불량 증거물 확보

경찰, 지상 떨어진 잔해물 압수...사고 원인 규명 조사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경찰이 다른 조사 기관과 합동으로 붕괴사고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붕괴한 잔해물과 같은 날 타설한 콘크리트 등을 압수해 재료와 양생 불량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8일 오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붕괴사고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본부는 붕괴해 지상에 떨어진 잔해물을 수거해 부서진 콘크리트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또 붕괴사고가 발생한 2단지 옆 1단지 건설 현장과 사고 한 달여 전 전 콘크리트 타설면이 주저앉은 사고가났던 203동에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이 목격됐다.

이는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붕괴가 시작된 39층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같은 날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른 현장의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량 양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더 굳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분석해야 하지만, 수색

상황과 안정상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하니 우선 확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직접 접근이 어려워 붕괴사고 발생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부실시공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압수한 콘크리트 시료 분석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상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콘크리트 납품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최환준 기자

광주 고교생들 “안전사회 대책마련”

학생의회, ‘처벌법 제정·전수 조사’ 촉구

광주지역 고등학교생들이 18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한 사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주 70여개 고등학교학생회 대표가 모인 광주고등학교학생회는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학생 희생자를 포함해 17명의 사상자를 낳은 학동 참사로부터 고작 7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5명의 실종자에게 부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

지 않도록 불법 재하도급과 부실시공 의혹 등을 투명하게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광주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준수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울리 “학생과 시민들은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희생자 발인식...유족들 “법적 처벌”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중 붕괴사고로 숨진 A씨(66)의 발인식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에는 유족을 비롯해 광주 서구청, A씨가 속했던 협력업체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장례 이틀째인 전날에는 정치인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 오전 8시에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위로를 건넸고, 김영배·박주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조문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빈소가 마련된 16일 방문했다. A씨의 조카 B씨(45)는 HDC현산 측의 방문에 “그건 조문은 아니다. 와서 인사했다고 사죄가 되는 게 아니잖나”라고 따졌다.

B씨는 HDC현산 정몽규 회장이 전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데 대해선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대검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 편성

대검찰청이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수사지원추진단’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추진단은 중대산업재해팀과 중대시민재해팀으로 구성되며, 대검 안전사고 전담 업무를 정립하고 일선 전담 검사를 지정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업무 분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와 근로감독관 지휘 체계를 구축하는 수사 협력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정했다.

/최환준 기자

상무지구 FUNIS

광주 최대규모! 세상에 없던 완벽한 즐거움!

스크린골프와 볼링, Cafe & Lounge 등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365일 즐거움이 쏟아진다!

- 3F_SCREEN GOLF**
폼격놀은 광주 최고 수준의 FUNIS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2실과 부대시설
- 2F_SCREEN GOLF**
폼격놀은 광주 최고 수준의 FUNIS PARK 시스템 스크린골프 11실과 부대시설
- 1F_CAFE & LOUNGE**
Fun it, us 프라이빗하게 소규모 모임과 미팅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공간
- B1F_BOWLING**
고급스럽고 프라이빗한 24레인 규모의 대형 볼링장

FUNIS

062. 374. 818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92(치평동) 구.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